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8월 7일(목) 18:1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8월 7일(목) 18:10**

**‘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’ 1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(윤이나, 방신실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7일(목) ~ 8월 10일(일) |
| 3 | 장 소 |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[북(OUT) / 서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광동제약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86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1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윤이나, 방신실, 박현경, 이동은, 노승희, 고지우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  정윤지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고지원, 성유진  강채연, 지한솔, 박성현, 임진영, 현세린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윤이나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공동 5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823>

**경기 소감은?**  
오랜만에 한국 팬들과 함께한 경기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. 그 기분 덕분인지 샷과 퍼트 모두 잘 풀렸다.

**오늘 보기 없이 라운드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다.**  
라운드를 마친 후에야 보기 프리였다는 걸 알았는데, 자신감도 얻었고, 남은 3일도 이런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.

**오늘 방신실, 황유민 선수와 같은 조였다. 함께 경기한 소감은?**  
정말 재미있었다.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.

**파5홀에서 버디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쉽지 않았는지?**  
아쉬웠다. 특히 마지막 파5홀은 꼭 버디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놓쳤다. 내일은 파5홀에서 좀 더 확실하게 버디를 노릴 생각이다.

**남은 3일의 전략은 무엇인지?**  
특별한 전략보다는 매 샷에 집중해 찬스를 만들고,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잡는 식으로 오늘처럼 플레이하고자 한다.

**올해 키워드를 ‘성장’이라고 했는데,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장을 느끼는지?**  
경기를 스스로 풀어가는 능력이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다. 기술적으로는 쇼트 게임, 특히 어프로치 능력이 다양해졌다.

**오늘 경기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?**  
약 70% 정도 만족한다. 몇몇 미스샷과 놓친 찬스가 아쉽지만, 보기 없이 마무리했고 퍼트 감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하루였다.

**◈ 방신실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공동 5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5>

**경기 소감은?**

하반기 첫 대회이자 작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라서 잘하고 싶었다. 영국에서 바로 와서 컨디션이 걱정됐지만, 좋은 스코어로 잘 마무리해서 기쁘다. 그리고 오랜만에 황유민 선수, 윤이나 선수와 함께해 즐거웠다.

**LPGA 출전 경험이 도움되었나?**

영국 코스는 페어웨이가 좁았고 잔디 변화도 컸다. 그런 악조건 속에서 쇼트게임 기술을 많이 배웠다. 예측할 수 없는 날씨도 힘들었는데, 오히려 여기 제주도도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한 셈이다.

**코스는 어땠는지?**

처음 라운드했지만, 전반적으로 넓은 편이라 장타자에게 유리하다. 티샷 때 바람에 따라 공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페어웨이에 적중하는 것이 중요하다.

**전략 및 각오**

오늘처럼 최대한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버디를 많이 잡겠다. 사실 상반기에 2승을 이렇게 빨리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, 좋은 흐름을 타게 되면서 하반기 목표도 높아졌다. 하반기 첫 대회이자 시즌 3승이 걸린 중요한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.